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8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9월 15일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구도영_동북아역사재단

1. 들어가며 - 16세기, 전 지구적인 교역과 폭력의 시대
2. 명(明)의 대외 무역 정책과 조선에 대한 예우(禮遇)
3. 명(明)이 조선을 예우한 이유
4. 나가며 -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구도영_동북아역사재단

1. 들어가며 - 16세기, 전 지구적인 교역과 폭력의 시대

16세기 세계사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대항해 시대’이다.¹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인은 1545년 포토시(POTOSI, 현재 볼리비아)에서 대규모 은광(銀鑛)을 발견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약 1만 5천 톤의 은이 교역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로 흘러 들어갔다. 유럽은 유례없는 교역 활성화와 경제 호황을 누렸다.

대량의 은 유통과 교역 활성화는 비단 유럽사의 영역만이 아니었다. 16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 대국 명(明)을 중심으로 ‘교역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 15세기 중후반 명이 세금을 은(銀)으로 걷으면 서, 은은 점차 동아시아 무역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도 동남아시아 플라카 해협 등을 거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일본은 16세기 전국 시대(戰國時代)를 맞아 각지 영주들이 군자금 확보를 위해 무역과 은광 개발에 뛰어들었다. 조선에서 개발된 은 제련 기술인 연은분리법(鍊銀分離法)이 1533년 일본으로 전래하면서 은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일본 은(銀) 역시 조선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명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전 지구적인 교역과 경제 호황 이면에는 많은 인명을 살상(殺傷)한 폭력성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아메리카 포토시의 은은 ‘전설적인 부(富)와 믿을 수 없는 고통’을 상징했다. 아메리카 문명과 삶은 유럽인의 무기와 병균으로 파괴되었다. 서인도제도 등지에는 노예무역으로 잡혀 온 아프리카인이 사탕수수과 담배 농장에 강제 동원되어 유럽의 부(富)를 지탱했다.

¹ ‘대항해 시대’는 워낙 널리 알려진 표현이지만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용어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의 활동무대가 광역화된 극적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폭력을 담보한 경제적 풍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아메리카 포토시에서 은광 개발에 동원된 원주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과열된 교역 욕구로 대대적인 약탈과 살상이 자행되었다. 몽골과 여진 세력은 무역 시장 확대를 요구하며 명 북방 지역을 유린했고, 급기야 1550년 명 수도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하였다. 남방 해역에는 불법 무역을 전개하는 일본 왜구와 포르투갈 해적이 창궐했다. 중국 동남부 연안에서 왜구에게 사로잡히거나, 학살당한 중국 양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중국 남북 도처에서 전개된 폭력의 광기는 명의 대외 무역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교역의 시대를 맞아 거대한 시장을 가진 명과 무역하고 싶었다. 하지만 명 조정은 국초 이래 제한된 사행 무역(使行貿易) 정책을 고수하였다. 명과 교역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교역 욕구가 무역을 거부하는 명의 대외 정책과 충돌하면서 불법 무역과 약탈이 횡행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시기 명과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 없이 무역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이웃 나라들과 대비되는 조선의 이 평온함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2. 명(明)의 대외 무역 정책과 조선에 대한 예우(禮遇)

명을 건국한 홍무제(洪武帝)는 원나라 시기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민간 대외 무역을 모두 금지하고, 외국 국왕이 파견하는 공식 사절단에게만 무역 기회를 부여하였다.(사행 무역) 그는 거대한 수익이 따르는 대외 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둬으로써, 명과 무역을 원하는 다수의 외국을 외형상 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외교 질서에 편입할 수 있었다. 또 국내적으로는 황제권에 도전할 만한 거대 상업 세력의 성장을 방지하여 전제 정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외국과의 무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황제의 권위 확보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 대외 무역은 이전과 달리 정부 주도하에 협소한 통로로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대외 무역을 위해 명 정부가 만든 무역 규정을 동아시아 나라들과 조선을 구분하여 간략히 비교 검토한다. 명의 대외 무역 정책과 각 나라의 대외 무역 활동 폭을 소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명의 대외 무역 정책과 통제

① 무역 총량 통제

명은 사행의 선박 수, 수레 수, 인원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여, 외국의 무역 총량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② 베이징 무역 활동 폭 통제

명은 외국 사행단이 베이징 도성 안에 도착하면 공식 일정 외에는 숙소인 회동관(會同館)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외국인과 자국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이 명 권역 내에서 방만하게 무역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인데, 이를 문금(門禁)이라 하였다. 문금 때문에 외국 사행원은 주로 숙소에 머무르며 베이징 시장을 마음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무역도 외국인 숙소 내부에서 진행해야 했고(회동관 개시), 그마저도 3~5일 정도로 제한되었다.

③ 무역 세금

명은 국초에는 외국 사행이 가져온 무역품 구매 가격을 정부 예산으로 후하게 지불했다.(관무역 방식) 이것이 점차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자 15세기 중반 이후 무역품 구매 가격을 이전보다 낮추었다. 15세기 후반 홍치제(弘治帝) 시기에는 일본 등의 사행단에게 관세(關稅)까지 부과했다. 명이 정한 관세는 가혹하

였다. 사행이 가져온 전체 무역품 중 현물 50%를 명 조정이 무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50% 물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즉 외국 사행이 가져온 물건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는 구조였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태국(暹羅, 섬라), 자바(爪哇, 조와) 등의 사행단에는 시장 무역한 것의 20%를 상세(商稅)로 거두었다.

④ 짐 검사

외국 사행단이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시기가 되면, 명 관료가 직접 사행단의 숙소로 가서 짐바리를 일일이 풀어 보며 짐 검사를 하였다. 군수품과 같이 명에서 수출을 금지한 물품을 몰래 구입하여 숨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⑤ 무역 횡수

명은 15세기 중반 이후 무역만을 요구하는 외국 사행의 방문을 그다지 반기지 않게 되었다. 정기 사행 파견 횡수를 규제하며 무역 기회도 점차 제한했다. 명은 1년 1회 사행을 파견하던 베트남 남부(占城), 자바 등의 나라에 사행을 자주 파견하지 말라고 압박하였다. ‘사행 파견이 외국과 명 지역 모두를 심히 번거롭고 소요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이 나라들은 정기 사행을 3년에 1회 정도 파견하게 되었다. 게다가 명은 1475년(성종 6) 류큐(琉球) 사행이 명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행 파견 횡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류큐는 명 조정에 정기 사행 횡수 회복을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일본 사행은 사건 사고가 잦아 15세기 초부터 정기 사행이 10년 1회였는데, 1523년(중종 18)에는 일본 사행단이 명 내에서 폭동과 살인까지 저질러 사행 자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책임을 묻기도 했다. 몽골은 국초에 과도한 무역 욕구를 보여 명과 갈등이 깊어졌고, 15세기 말 사행 파견이 단절되었다.

이처럼 명 정부는 민간 대외 무역을 배제한 데다, 외국에 사행 무역의 기회조차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행 무역은 합법적이었지만 무역량과 기회가 명 정부에 통제되어 내외부의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던 외국 세력은 결국 합법 무역에서 불법 무역 시장으로 방향을 돌렸고, 대대적인 약탈 행위로 나아가기도 했다.

2) 명의 '조선'에 대한 무역 정책과 우대

앞서 언급한 명의 대외 무역 규정이 조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역 총량 통제 규정 없음

조선에는 무역 총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② 베이징 무역 활동 폭 여유

조선 사행단 실무자에게는 문금이 적용되지 않아, 숙소 밖을 나가 베이징 시가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² 게다가 명은 조선과 류큐에는 회동관 개시의 무역 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③ 무역 세금 없음

명은 조선의 사행 무역에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무역에 따른 세금이 없다는 것은 무역에 가담했던 조선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었다. 조선 사행은 베이징 회동관 개시, 베이징 시장, 요양 및 사행로의 도시에서 거래했다.

④ 짐 검사 간소화

명 관리들은 조선 사행의 짐을 간소하게 검사하거나 아예 검사하지 않기도 하였다. 조선 사행은 명에서 무역을 금지한 수우각(군수품)을 지속하여 비밀리에 수입하였으므로, 명이 조선 사행의 짐 검사를 간소화한 것은 조선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이는 조선의 군수품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⑤ 무역 횟수 최다

조선의 정기 사행 횟수는 1년 3회로 여러 외국 중 가장 많았다. 다른 나라 대부분이 3년 1회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조선은 사행 무역(합법 무역) 기회가 월등히 많았다. 다만 조선의 사행 횟수가 많은 것은 고려 시대의 관례를 따른 것이어서, 애초에 정해진 1년 3회 규정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못 된다. 그런데도 조선의 사행 파견 횟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이 15세기 중반 외국의 사행 파견 횟수를 하나같이 축소하는 와중에도, 정작 명에 가장 자주 사행을 파견한 조선에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조·명 관계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명과 가장 자주 사행 무역을 진행한 나라였다. 명 법전에 기록된 각국의 정기 사행 횟수는 아래 표와 같다.

2 16세기 초중반에 이르면 회동관 상인 등의 이권과 관련해 조선도 문금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조선 통사가 외교 활동을 위해 베이징에 있는 명 관료의 집(私家)을 수차례 찾아갔을 정도로 운신의 폭이 넓었다.

〈표 1〉 16세기 여러 나라의 대명 정기 사행(합법 무역) 횡수 기록

국명	정기 사행 횡수	국명	정기 사행 횡수
조선	1년 3회	베트남 남부(占城)	3년 1회
류큐(琉球)	1년 1회 → 2년 1회	자바(爪哇)	3년 1회
일본(日本)	10년 1회	오스만튀르크(魯迷)	5년 1회
베트남(安南)	3년 1회	신장 위구르(哈密)	1년 1회 → 5년 1회
태국(暹羅)	3년 1회	사마르칸트(撒馬兒罕)	5년 1회

참고 자료: 『대명회전(大明會典)』

이상과 같이, 명은 외국 사행단의 무역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였지만, 조선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 여러 외국이 배와 말에 화약과 무기를 장착한 뒤 목숨을 건 위험한 불법 무역에 뛰어들 때, 조선은 안전한 사행 무역(합법)으로 무역 규모를 키운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

3. 명(明)이 조선을 예우한 이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은 다른 외국에 비해 조선을 예우하였다. 이 외에도 명이 조선을 특별히 대하였다는 기록은 많다. 『명사(明史)』 「외국조」에는 ‘(명) 조정이 예(禮)를 더하여 (조선을) 대우하였으니, 다른 나라가 감히 바라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명이 조선을 ‘예의지국(禮義之國, 예의의 나라)’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명이 조선을 예의지국이라 여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은 양국 정부가 합의했던 명의 주요 행사에 사행을 파견하는 외교 의례(儀禮)를 준수하였다. 이는 명의 치세 변동이나 정치적 상황 및 자국의 필요에 따라 사행 파견 여부가 일정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나라와 대비되는 일이었다.

다수의 외국은 무역을 위해 명에 사행을 자주 파견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명에서 정한 사행 파견 주기를 준수하여 예를 갖추는 것은 미흡하였다. 사행 파견은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또는 국내의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명 황제에게 매우 불쾌한 것이었다. 설날이나 황제 생일에 명 관료와 외국 사신들이 황궁에 모두 모여 황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행위는 천자(天子)라는 명 황제의 관념상의 위계를 외형상으로나마 구현해 보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상징적 정치 예식이었기 때문이다. 경제 대국이었던 명 입장에서는 국가 위상과 황실 권위를 세우는 의례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익’이었다. 홍무제가 민간 대외 무역을 금지하고, 오직 외국 국왕 사행단에만 무역을 허가한 것도 그러한 예식을 중히 여겼던 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일부 외국 사신들은 베이징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들이 가져온 무역품에 더 높은 값을 매겨 달라고 협상하는데 목소리를 높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명 황제들은 점차 그런 나라의 사신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 사행 횡수를 줄였다. 또 무역 이익에만 관심을 둔 나라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시기에 따라 사행을 파견하고, 늘 격식을 갖추며 의례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조선이 명에게 특별한 나라로 비추어졌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624년, 명나라에 파견된 이덕형 일행의 사행(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둘째, 명의 식자들이 ‘조선의 문화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응대를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조선은 명과 같은 문자(한자)를 공유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명 지식인에 비견되는 학문 수준과 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문화 수준은 조선이 보내는 외교 문서와 조선 사신의 시문(詩文) 등으로 확인된다. 명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인 표문(表文)은 상당한 수준의 한문 실력과 유학적 소양, 서식까지 두루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서인지라, 이를 직접 작성할 수 있었던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은 외국 사신이 가져오는 외교 문서를 그 나라의 학문 수준과 얼굴로 인식하였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절사 유진동(柳辰叟)이 명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처음 (명) 예부에 도착하였을 때, 낭중 주충(周琮)은 이제 막 제수된 자였습니다. … 오만하게 보면서 답배(答拜, 답례 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선의 자문(咨文, 외교 문서 일종) 내용을 보더니 ‘일찍이 조선을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 들었는데 인제 보니 과연 그렇다’ 하면서 … 그 뒤부터 행례(行禮) 때마다 답배를 하고, 하찮은 통사에게도 읍(揖)만 하고 절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명종실록』 권2, 즉위년 10월 25일

위의 글을 보면, 명 관료 주충이란 자가 처음에는 무례하게 조선 사신의 인사도 잘 받지 않다가, 조선 외교 문서를 읽고 그 실력에 감탄한 뒤 소문대로 예의지국이었음을 인정하고 신분이 낮은 조선 통사조차 예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사신이 작성한 시문(詩文)이나 조선 지식인과 명 지식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필

답(문서 대화)도 조선 관료의 학식과 예모(禮貌)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 명은 ‘조선은 독서를 많이 하여 예를 알기 때문에 조선에 파견하는 중국 사신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 1527년(중종 22) 복건성 영파(寧波) 지역에서 발급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조선은 예의지국이다. 풍속이 문자를 알고 글 읽기를 좋아하니 예우해야 한다.

현재 K-POP 등이 한국 문화 역량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면, 당시는 지식인의 학문 수준이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기준이었다.

요컨대 이러한 요소들이 조선을 일정하게 예우한 토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예(禮)를 지키는 것을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관념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6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폭력 사태로 비화하지 않고도 조선이 외교적 안정과 경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논리로 기능했다.³

17세기 명 지식인 사조제(謝肇淛, 1567~1624)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여러 나라 중

조선보다 예의 바른 나라는 없고,
교지(베트남 북부)보다 비옥한 나라는 없으며,
달단(몽골)보다 용맹한 나라는 없다.
왜노(일본)보다 교활한 나라는 없고,
류큐(오키나와)보다 순박한 나라는 없으며,
진랍(캄보디아)보다 부유한 곳은 없다.

- 사조제, 『오잡조(五雜俎)』 권4

4. 나가며 -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16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교역 열풍과 이를 거부하는 명의 대외 무역 정책이 충돌하면서 ‘교류와 갈등’의 불안한 이중주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명과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고, 별다른 갈등 없이 무역 경제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시각에서 보면

3 이 글은 『16세기 한중무역 연구-훈돈의 동아시아, 예의의 나라 조선의 대명무역』(구도영, 2019, 태학사)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명 사신을 맞이하는 조선 관리들을 그린 <황화 사후록>(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조선과 명 관계의 안정성’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규정된 시기에 맞추어 사행 파견을 준수하여 외국의 의전(儀典)을 철저히 지켰다. 당시 그러한 나라가 많지 않았기에, 의례를 중시하던 명 정부에게는 조선 사신의 모습이 특별해 보였다. 더욱이 조선에서 작성한 수준 높은 외교 문서, 사신으로 파견된 조선 관료들이 남긴 고도의 유학적 소양이 배어 있는 시문(詩文), 예법에 입각하여 명 사신을 대하는 조선 정부의 접대 행정 등은 조선인의 품격을 높였다. 문화적 역량으로 중화(中華)를 강조하던 중국인에게 조선인의 높은 소양은 주목되는 것이었다.

명은 ‘오랑캐 나라’들과 구분되는 조선을 ‘예의지국’으로 인정하면서, 특별하게 대우했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명이 상호 존중과 외교적 품위를 갖추하고자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의는 어느 한쪽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지켜야 할 규범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국가 간 힘의 차이에도 국제 매너를 지키고자 하는 과정과 노력 덕분이었다. 이들 두 나라는 예의지교(禮義之交)를 통해서 장기 지속적인 외교적 안정성과 경제적 이익을 누리하고자 했다.

진정한 미래는 오랜 옛 지혜 속에 있다. 과거 예의지교의 모습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구도영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선 전기 한중외교와 무역을 연구하였고, 최근 문화 교류로도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저서 『16세기 한중무역 연구』와 논문 「15세기 중국에서 유행한 조선의 마미군 패선, 그 문화적 변용에 대하여」, 「근세 동아시아 세계 약용식물 인삼(人蔘)의 가공과 유통」,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도서(島嶼)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